

국·내·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선진 항공업체 도약을 위한 '제2창업' 선언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정해주) (이하 KAI)가 지난 9월 25일 KAI 사천 본사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2010년 세계 10대 항공업체 진입이라는 "뉴 더블텐 (New '10 '10)" 비전을 달성하여 Global KAI로 도약하기 위해 '제2창업'을 선언했다.

'제2창업' 선언은 서울 본사, 대전 우주센터와 창원공장의 사천 이전으로 사업장 일원화 (Single Site)가 마무리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건설한 재무상태의 Clean Company로 거듭나는 등 경영구조 효율화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영혁신 활동을 더욱 확산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고, 선진 항공업체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KAI는 금번 '제2창업' 선언을 계기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산완제기인 KT-1, T-50의 수출과 해외 선진업체와의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Global KAI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전사 활동으로 '3M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KAI 정해주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창립 7주년을 맞아 '제2창업'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전제한 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개선된 경영성과를 토대로 '뉴 더블텐 (New '10 '10)' 비전 실현을 위해 '제2창업' 정신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국민기업 KAI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9일 KAI는 개발 및 생산라인을 사천공장으로 일원화, 생산효율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연면적 1만평 규모의 초대형 '첨단 민항기 부품조립공장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한·유럽연합간 갈릴레오 협력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9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과 갈릴레오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EU와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협력원칙과 협력범위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미국 GPS에만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이 이번 협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지구 상공 2만 3,000km에 30기의 위성을 배치하여 2010년부터 위치확인 서비스 및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상업용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하여 EU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EU가 추진했던 우주사업 중 사상 최대인 34억 유로(약 4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지닌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한다. 2005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 위성항법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부처별로 세부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가 위성항법시스템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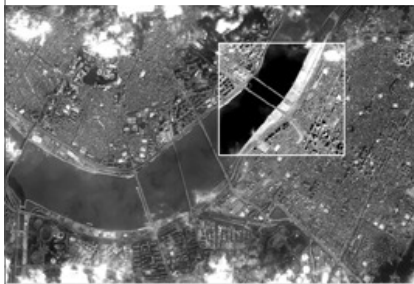
아리랑2호, 위성영상 10여점 공개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지구상공 685km 지점에서 위성 카메라로 찍은 첫 우리나라 위성 영상 10여점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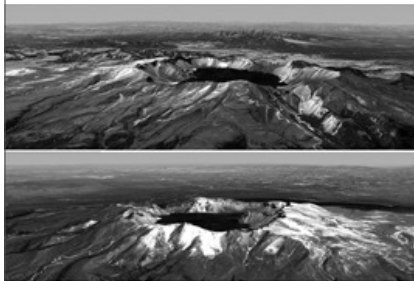
그 동안 한반도 상공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세한 영상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쾌청한 가을 날씨 덕분에 백두산 및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영상을 보내왔다. 특히, 이번 위성영상에서는 산과 도시의 최첨단 3차원 영상도 함께 선보였다.

아리랑 2호가 촬영한 서울 남동부 일대의 영상(4m 칼라 합성)에는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길은 물론 잠실종합운동장이 선명하게 보이고, 구름 사이로 빼곡한 강남의 아파트단지와 아차산, 풍납토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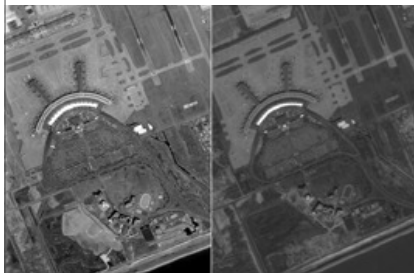
다목적 실용위성 1호와 2호의 사진을 비교한 인천국제공항 영상에서는, 아리랑 2호가 촬영한 왼쪽 사진 활주로에 INCHEON 이라는 글자와 계류 중인 비행기, 주차장의 차량 등이 확인된다.



서울특별시



백두산



인천국제공항

ICAO와 개도국

항공기술교육 공동시행 협정체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항공기술을 전세계에 전수시키기 위한 “개도국 초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추진하는 협정을 지난 9월 12일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항공교육과정을 ICAO와 공동시행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국제 항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이 교육사업을 ICAO로부터 국제표준과정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항공인력개발원이 미국의 FAA아카데미와 싱가포르의 항공훈련원과 같이 세계적인 항공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프로그램 총괄 및 교육시행을 담당하고, ICAO는 각 교육과정의 국제표준 인증 추진과 우리측이 요청할 경우에는 전문 강사 등도 지원하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교육시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항공안전본부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국가별 참가자 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3년간 117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과정”, “전방향표지시설 과정” 및 “레이더 관제과정”을 한국공항공사 항공인력개발원(충북 청원)에서 각 과정별로 2~3주간 총 9회에 걸쳐 이

론 강의, 실습 및 현장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 항공현장에서 일하게 될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우주인

1차 선발 예비후보 500명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만 6천여명의 한국우주인 지원자 중에서 기본신체검사 대상자 500명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들 500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기본신체검사를 거쳐 10월 중순 한국우주인 1차 선발자 3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종합평가에서 선정된 예비후보 500명은 남자가 435명, 여자가 65명으로 연령대별로는 최연소인 19세가 5명이 있으며, 20대가 206명, 30대가 225명으로 비슷하였고, 40대는 60명, 50대도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재학 66명, 석사 145명, 박사 80명이며, 고졸이하는 2명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번 선정자중 최고령은 56세의 대학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 분포를 보면 민간기업 종사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이 102명, 연구원 65명, 교육계 46명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공무원, 군인, 민간 조종사, 경영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6명, 부산 14명, 인천 12명, 대전 38명, 대구 6명, 울산 3명, 광주 3명, 강원도 4명, 경기도 117명, 경상도 22명, 전라도 7명, 충청도 9명, 제주 3명, 해외 거주자가 6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2, 3, 4차의 선발과정을 통해 내년 1월경 한국 우주인 후보자 2인을 확정하고, 선발된 2명은 2007년 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기초훈련, 우주적응훈련 및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 등을 받은 후 최종 1명이 2008년 4월경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다.